

# 믿었던 호텔마저... 항공업계, 시너지는 커녕 '마이너스 실적'

대한 592억·아시아나 6.7억 적자  
'한진인터내셔널' 지분 매각 보유  
아시아나 골프사업, 연속 적자 기록

항공업계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뻗었던 숙박업마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으며 외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항공사 중 호텔 등 숙박업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3곳이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해 국내에 코로나가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이 같은 숙박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본업인 항공 서비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수익은 차치하고 항공업에 더불어 숙박업도 외려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현재 자회사를 통해 미



대한항공 LA월서그랜드센터.

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월서그랜드센터를 소유 중이다. 1989년 대한항공이 100% 출자 법인으로 설립한 자회사 한

진인터내셔널은 재개발을 통해 2017년 월서그랜드센터를 개관했다. 월서그랜드센터는 인터컨티넨탈호텔과 사무 및 상업 공간 등을 갖춘 최첨단 건물이다. 한진그룹은 이를 위해 2009년부터 8년간 총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9억 5000만 달러(약 1조1215억원)를 한진인터내셔널에 빌려주면서 당사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협의도 최근까지 진행해왔다. 본업인 항공업도 어려운 가운데 월서그랜드센터의 수익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호텔 부문의 총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612억원, 59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은 약 56% 줄고 영업손실도 411억원에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다만 한진인터내셔널의 일부 지분 매각을 위한 협의는 지난해 11월 중단

돼 아직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진인터내셔널에 빌려준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으려 했던 대한항공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신 대한항공은 대여금에 대해 한진인터내셔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를 지난해 말 취득했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관하는 담보부 차입을 통해 대한항공에 3억 5000만 달러를 우선 상환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해당 건은 진행 중으로 근시일 내 완료될 예정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미국 내 호텔·오피스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으로 협의를 중단했다"며 "향후 코로나19의 진전 상황을 고려해 가격 등 지분 매각 조건이 당사에 유리한 시점에 지분 매각을 재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도 2008년 웨이하이포인트

호텔&골프 리조트를 열어 골프 사업을 주목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 여파로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웨이하이포인트 호텔&골프 리조트의 분기순손실은 6억6941만원으로, 전 분기 7억3973만원에 이어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또한 지난해 3분기 25억 8229만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61억 9579만원 대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었다.

아울러 2018년부터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를 통해 숙박업을 시작한 제주항공도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제주항공은 앞서 줄곧 적자를 기록하다 2019년 3분기 영업이익 1억 8200만원으로 처음 호텔 부문서 흑자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1억8157만원에서 3분기 -26억9951만원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현대·기아차 '아이디어 페스티벌' 성료

# 차량 위생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성과'

남양기술연구소 직원 직접 기획·제작  
2010년부터 매년 아이디어 경연대회

현대·기아자동차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7개월 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선정된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현대·기아차는 현대·기아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미래 모빌리티를 선보이는 'All-New 아이디어 페스티벌'의 본선대회 시상식을 했다고 7일 밝혔다. 11회째를 맞은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아이디어 경연대회다.

페스티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제안하는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비대면 및 차량 위생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특히 올해는 연구개발본부뿐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현대기아차 All New 아이디어 페스티벌 금상 수상작 Untact Virtual Controller

대상을 확대하고, 영상 등을 통해 기술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시나리오 제작 부문'을 신설했다.

역대 경연대회 중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접수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11팀(중국기술연구소 1개팀 포함)이 경합을 펼쳤다.

본선에 오른 팀들은 현대·기아차로부터 제작비와 실물 제작 공간 등을 지

원받아 7개월 동안 아이디어를 실물과 시나리오로 제작했다.

실물 제작 부문에서는 전해수 차량 살균 시스템을 고안한 '카 퓨어' 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사이드 미러에 스피커와 마이크를 장착해 차량 외부와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셰이프 카드' 등이 금상을 수상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모델솔루션', CES서 AR 기반 신제품 공개

다양한 CMF 솔루션 공개 예정

한국엔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인 토탈 솔루션 기업 모델솔루션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21'에서 최첨단 솔루션 기업의 혁신적 기술력을 선보인다.

7일 모델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CES 2021'에서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증강현실(AR) 기술 및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신제품을 공개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최근 개발한 'CMF Lab(Color, Materials, Finish Laboratory)'의 다양한 CMF 솔루션

을 선보여 뛰어난 디자인 역량을 입증할 계획이다.

먼저 AR 분야에서는 산업용 증강현실 디바이스(ARHMD) 디자인 및 연구 개발에 대한 결과물로 프로토타입 신제품인 코드명 'MS-AR20'을 공개한다. MS-AR20은 사용자의 사용성을 고려, 다양한 평가 및 착용 테스트를 통해 필수 기능을 탑재하여 산업 특화된 제품으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개인 이동수단 분야에서는 AR을 접목한 첨단 미래형 프리미엄 전동 킥보드의 프로토타입 신제품인 코드명 'MS-PM20'을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 LGU+

### 초등생 전용 스마트폰 출시

LG유플러스가 '공부폰', '안심폰'으로 입소문을 탄 초등학생 전용 스마트폰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자녀 보호기능을 강화한 초등학생 전용 스마트폰 'U+카카 오리틀프렌즈폰4'를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14일까지 사전판매를 진행해 오는 15일 정식 출시한다.

이번 모델은 삼성전자 갤럭시 A10e KIDS(3GB) 모델을 기반으로 '키워플러스'와 협업해 제작된 LG유플러스 전용 모델로 카카오 오리틀프렌즈 캐릭터 테마가 탑재돼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

## KT 'AI 원팀', AI 기술 4종 개발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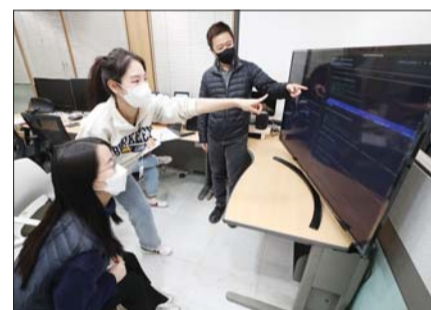
현대·LG·동원 등 참여

인공지능(AI) 1등 대한민국을 목표로 KT와 현대중공업그룹, LG전자, LG유플러스, 한국투자증권, 동원그룹, 카이스트, 한양대, ETRI가 참여해 출범한 'AI 원팀'이 10개월여 만에 첫 공동 연구개발(R&D) 성과를 내놓았다.

KT는 'AI 원팀'의 공동 R&D를 통한 첫 성과로 4종의 AI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된 4개 기술은 ▲딥러닝 음성합성(P-TTS) ▲E2E 음성인식 ▲무빙 픽처 ▲AI 기반 로봇 고장 진단 기술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4개 연구 성과 가운데 3개는 KT 사업의 핵심기술로 활용하고, 1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산업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딥러닝 음성합성(P-TTS)' 기술은 KT와 카이스트 김희린 교수가 협력해 개발했다. 기존 대비 비용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속도는 10배 가량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순서대로 음성을 만드는 방식에서 동시에 음성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해, 획기적인 속도향상이 가능했다. KT는 올해 1·4분기 중으로 이 기술을 상용화해 AI 컨택센터(AICC), 차세대 기가지니 등



서울 서초구 KT융합기술원에서 연구원들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KT

에 활용할 계획이다.

'엔드투엔드(E2E) 음성인식' 기술은 KT가 한양대 장준혁 교수와 함께했다. 음성인식 분야의 최신 트렌드인 이 기술은 인식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적은 양의 학습데이터로 도메인 확장이 가능하다. KT는 이 기술을 토대로 자유발화 음성인식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무빙 픽처' 솔루션은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AI 기술로 KT와 한양대 김태현 교수가 함께 연구했다. 이미지에 모션 효과를 적용해 영상으로 바꿔준다. 영상 분할, 객체 검출, 모션 추정, 초해상도 이미지 복원(인페인팅)과 같은 최신 AI 기술을 적용했다. KT는 이 무빙 픽처 솔루션을 IPTV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

## SK엔터카 창사 첫 녹색채권... ESG 경영 실천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사용

SK엔터카가 녹색 채권을 발행하며 친환경 사업을 향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SK엔터카는 오는 27일 녹색 채권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전기차와 탄소 감축 등 녹색산업과 관련한 용도로만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ESG 채권 한 종류다.

SK엔터카 녹색채권은 5년물로, 수요 예측은 1500억원 규모로 진행해 최대 3000억원까지 발행 가능하다. 구체적인 발행 조건은 추후 결정할 예정으로, 녹색채권 인증은 이번달 3주차 한국 신용평가사로 이뤄질 예정이다.

SK엔터카는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렌탈 사업 확대를 통한 ESG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김재용 기자 juk@